

자녀요인이 기혼 취업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일-가족 전이유형 및 가족-일 전이유형의 다중매개효과 분석*

김성경**

초 록

본 연구는 기혼 취업여성의 자녀요인이 일-가족 전이유형 및 가족-일 전이유형을 다중매개로 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제7차 여성가족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으로 30세~59세 임금근로 여성취업자 1,65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자들은 일-가족 긍정 전이와 가족-일 긍정 전이를 부정 전이보다 더 높게 경험하며, 전이 양상은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수와 초중고 자녀수 모두 기혼 취업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직접적 영향력이 없으나 전이유형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스트레스에 대한 총효과는 미취학 자녀수가 가장 영향력이 있고 우울에 대한 총효과는 일-가족 부정 전이, 초중고 자녀수, 스트레스가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기혼 취업여성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그 자체의 개입 뿐 아니라 자녀요인과 일-가족 전이에 대한 개입 또한 요구됨을 시사한다. 그리고 가족 생활주기에 따라 자녀 연령대 맞춤형 지원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 및 실천현장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기혼 취업여성, 자녀요인, 정신건강, 일-가족 전이유형, 우울, 스트레스

* 본 논문은 2020년 한국성서대학교의 연구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sukyki@naver.com)

I. 서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 성장잠재력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0년 52.8%로, 2011년 49.8%에 비해 단지 3.0%p 증가하여¹⁾,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가정친화정책, 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논의는 미혼여성들보다 기혼여성들의 취업률이 왜 증가하지 못하는가로 귀결되곤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혼 취업 여성들이 직장 일과 자녀 양육역할을 병행해야 하는 자녀 양육기에 퇴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삶이 기혼여성들에게 직업을 포기할 만큼 쉽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노성숙·한영주·유성경, 2012).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혼 취업여성들은 남성 근로자보다 일 영역 및 가족 영역의 갈등과 우울 간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성국·박수연·이현실, 2017).

선행연구에서 기혼 취업여성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해 영향력이 높은 요인은 자녀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취업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부모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교육이 가장 큰 관심사이자 동시에 스트레스원으로 드러난다(윤지원·황라일·조현하, 2009 ; McLanahan & Adams, 1989).

또한 기혼 취업여성들은 자녀 양육기에 자녀양육 부담 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경력에 따른 업무부담이 동시에 작용하여, 일-가족 전이(work-family spillover) 및 가족-일 전이(family-work spillover)라는 일/가족의 상호작용 과정이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송지은·한경혜, 2007 ; 하여진, 2017 ; Grzywacz & Bass, 2003). 초기 연구들은 취업여성의 다중역할 수행 자체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김혜원·김명소, 1998 ; 송지은·한경혜, 2007). 그러나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다중역할의 수행 여부만으로 정신건강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다중역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 그리고 일-가족 전이유형 및 가족-일 전이유형의 영향에 주목하게 되었다(하여진, 2017).

1)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2에서 2021.10.13. 인출

선행연구에 따르면, 취업여성의 다중역할 또는 일-가족 전이 및 가족-일 전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일-가족 갈등이 취업남성보다 취업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더 미친다는 연구결과(송지은·한경혜, 2007)가 보고되는 한편, 다중역할의 참여는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하나의 역할에 참여하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연구결과(박수미·한성현, 2004 ; Grzywacz & Bass, 2003)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또한 하여진(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여성의 일-가족 전이양상 및 가족-일 전이양상은 전형적이지 않아 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주는 일-가족 전이유형 및 가족-일 전이유형이 외국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국 자료를 통해 취업여성들의 자녀요인 과 일-가족의 전이양상 및 가족-일 전이양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녀요인이 취업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해 어떤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일-가족 전이유형 및 가족-일 전이유형을 다중매개로 하여 정신건강에 어떤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취업여성들은 자녀 양육부담을 여성의 역할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젠더 효과의 영향이 큰 편이므로(송지은·한경혜, 2007 ; 최혜지, 2007), 생애주기에 따른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와 일-가족 전이유형 및 가족-일 전이유형에 대한 취업여성 인식의 차이가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심리적 과정의 탐구는 우리나라 취업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며, 여성복지정책 및 가족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유자녀 취업여성들의 정신건강과 관련 있는 변수들을 파악하여 이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현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녀요인과 취업여성의 정신건강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정신건강(mental health)의 개념은 정신장애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²⁾. 즉, 정신건강은 정신장애가 없음을 넘어서 주관적인 안녕과 더불어 최선의 심리적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안윤숙 외, 2016). 따라서 기혼 취업여성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다중역할 상황에서 정신장애가 없으며 주관적인 안녕과 더불어 최선의 심리적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를 뜻한다.

기혼 취업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그 중 영향력이 높은 요인 중 하나가 자녀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미취학 아동을 둔 취업모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로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가장 큰 스트레스원이자 관심사로 알려져 있다(김성경, 2011 ; 윤지원·황라일·조현하, 2009). McLanahan과 Adams(1989) 연구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취업여성이 무자녀 취업여성보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로 인한 양육부담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윤숙 외(2016) 연구에서 우리나라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가정 양립 그 자체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자녀 돌봄기능이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양육기에 있는 취업여성은 자녀돌봄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갈등이 높지만 아동의 돌봄 기능에서 벗어난 40대 이상 취업여성들은 직장생활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과거 연구에서 미취학아동의 여부 또는 총 자녀수로 자녀요인을 분석하였다면, 최근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자녀요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가 취업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Erickson, Martinengo 및 Hill 연구(2010)는 가족생활주기를 부부 형성기, 자녀출산기, 막내 자녀의 취학전 시기, 막내 자녀의 초등학교시기, 막내자녀의 중고등학교 시기, 빈둥지 시기 등 6단계로 나누어 미국 근로자의 일-가족 전이 및 가족-일 전이 경험을 탐색하였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

2)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8B%A0%EA%B1%B4%EA%B0%95>에서 2021.6.15. 인출

영역에서 발생하는 요구로 인해,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 영역에서 발생하는 요구로 인해 일-가족 갈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여성이 자녀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동시에 직업을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에 시간 압박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상반되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박수미·한성현(2004)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 취업여성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져 정신건강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많은 자녀수로 인한 역할부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일 향상 기능이 작용하여 갈등적 측면을 상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박수미·한성현, 2004).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기혼 취업여성에게 자녀요인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정서적 지원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복합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일-가족 전이 및 가족-일 전이와 취업여성의 정신건강

1) 일-가족 전이 및 가족-일 전이의 개념과 유형

일-가족 전이(work-family spillover) 및 가족-일 전이(family-work spillover)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전이(spillover)란 직장생활 영역 및 가정생활 영역 중 한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느낌, 태도, 행동이 다른 영역의 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가족 전이는 일 영역의 기능과 경험이 가정 영역의 기능과 경험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하며, 가족-일 전이는 가정 영역의 기능과 경험이 일 영역의 기능과 경험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한다(Demerouti, Geurts, & Kompier, 2004 ; Grzywacz & Bass, 2003 ; Major, Klein & Ehrhart, 2002).

일-가족 전이 및 가족-일 전이 관련 초기 연구들은 주로 일 영역과 가족 영역 간의 갈등에 집중했다. 연구자들은 개인이 동시에 이중 역할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중 역할을 통해 개인의 삶은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삶의 에너지는 고갈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역할 긴장이론'으로 일 영역과 가족 영역의 역할 긴장이 여러 측면에서 양립되지 않을 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Grzywacz & Bass,

2003 ; Major, Klein & Ehrhart, 2002). 갈등 연구자들은 다중역할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집중하고, 동시적 참여로부터 얻는 긍정적 혜택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 후 연구자들의 관심은 일-가족 긍정적 전이 및 가족-일 긍정적 전이의 가능성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일 영역과 가족 영역 간의 긍정적 순환관계와 동시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확인하고, 일-가족 활성화 및 가족-일 활성화(Grzywacz & Marks, 2000) 또는 일-가족 향상 및 가족-일 향상 개념을 제안하였다(Agrawal & Mahajan, 2021). 일-가족 활성화는 개인이 일 영역과 가족 영역을 함께 결합할 때 일어나는 시너지로 직장의 역할과 경험이 가족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가족-일 활성화는 가족생활의 역할 및 경험이 개인의 직장생활 업무 및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Grzywacz & Marks, 2000). 일-가족 향상 및 가족-일 향상은 개인이 가정 역할 및 직업 역할을 함께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혜택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하나의 역할 경험이 다른 역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하나의 역할 내에서 얻어지는 자원들은 직접적으로 다른 역할의 수행을 향상시키며(도구적 향상), 간접적으로 긍정적 정서(정서적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다(Agrawal & Mahajan, 2021).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일-가족 전이 및 가족-일 전이는 갈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향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등 여러 유형으로 보고된다. 즉 전이 방향에 따라 일에서 가족으로의 전이와 가족에서 일로의 전이로 구분되고, 전이 내용에 따라 긍정 전이 및 부정 전이로 구분된다. 이를 Grzywacz와 Marks(2000)는 ① 일에서 가족의 긍정 전이, ② 일에서 가족의 부정 전이, ③ 가족에서 일의 긍정 전이, ④ 가족에서 일의 부정 전이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은 서로 구별되는 차원임을 밝혔다.

2) 일-가족 전이 및 가족-일 전이와 취업여성의 정신건강

취업여성의 일-가족 전이 및 가족-일 전이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설명한 초기 연구자는 Pleck(1977)으로 일 영역 및 가족 영역의 갈등을 ‘성역할 긴장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는 직업 영역과 가족 영역 간 경계의 투과성에서 비대칭적(asymmetrical)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하였다. 일 영역 및 가족 영역 간 상호작용에서 여성 근로자는 가족 역할을 우선시하여 가족 역할이 직업 역할을 침해하는 것에 더 허용적이고, 남성 근로자는 직업 역할을 더 우선시하여 직업 역할이 가족 역할을 침해하는 것에 더 허용적이라

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들은 가족생활이 직업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긍정적 영향(가족-일 긍정 전이)만 허용하므로, 남성은 연속적으로 직업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여성은 동시에 다중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역할갈등(일-가족 부정 전이/ 가족-일 부정 전이)에 직면할 경우 여성은 더욱 역할긴장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것이다(Pleck, 1977).

일-가족 전이 및 가족-일 전이와 정신건강 관련 초기 연구는 갈등에 집중되어왔다. Allen 외(2000)는 일-가족 갈등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메타분석을 통해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를 직업 성과, 비직업(nonwork) 성과, 스트레스 관련 성과로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스트레스 관련 성과를 일반 심리적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 우울, 약물남용, 소진, 일 관련 스트레스, 가족 관련 스트레스 등 7개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일-가족 갈등, 특히 가족생활을 방해하는 직업은 개인의 일반 심리적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 우울, 약물남용, 소진, 일 관련 스트레스, 가족 관련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Frone(2003)은 일 영역 및 가족 영역의 갈등이 정신건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강력함을 발견했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가사노동 및 양육역할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가족 역할에 영향을 주는 갈등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그 후 일-가족 긍정 전이 및 가족-일 긍정 전이, 확장이론, 다중역할 향상의 가설을 통해 다른 접근이 시도되었다. 연구자들은 다중역할의 참여는 유익하고, 더 나은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녕감을 제공하며 하나의 역할에 참여하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결론을 이끌었다(박수미·한성현, 2004 ; Grzywacz & Marks, 2000).

우리나라에서 일-가족 전이 및 가족-일 전이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한경혜·차승은 연구(2004)에서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가족 전이 및 가족-일 전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취업남성의 경우 배우자 역할의 비용이 높을수록, 일에서 가족의 부정 전이를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한편, 직업 역할의 보상이 클수록, 배우자 역할보상이 클수록, 그리고 일로부터 가족의 긍정 전이를 많이 지각할수록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경우 배우자 역할 비용이 높을수록, 일에서 가족의 부정 전이를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한편, 배우자 역할보상이 클수록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자들은 정신건강의 결정요인에 있어 남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부정 전이 경험보다는 긍정 전이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송지은·한경혜 연구(2007)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만 30~59세 남녀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특성, 가족특성, 일-가족 전이 및 가족-일 전이와 취업자의 정신건강(우울감, 긍정적 정서,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취업여성 모두 일-가족 긍정 전이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와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고, 일-가족 부정 전이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가 낮아지고 우울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취업여성의 경우 일-가족 긍정 전이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와 심리적 복지감이 높고 가족-일 긍정 전이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취업여성들은 무자녀의 경우에 비해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정 전이와 취업여성의 우울감 및 긍정적 정서 간의 관련성에서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나, 미국 취업여성의 현저하게 낮은 정신건강 상태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연구자는 미국 취업여성의 경우 두 역할의 조화를 바람직하게 보는 문화적 기대가 지배적인 반면, 한국사회는 취업여성들이 일보다 가족역할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보다 허용적이고 취업여성 스스로도 허용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송지은·한경혜, 2007).

또한 하여진(2017)은 기혼 취업여성 집단을 일-가족 전이 및 가족-일 전이 양상에 따라 네 집단으로 유형화하고, 집단별 정신건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스트레스와 우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스트레스는 저수준 전이집단이 고수준 전이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우울은 저수준 전이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간수준 전이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가족 전이 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보고해 직장과 가정 간의 활발한 전이가 오히려 기혼 취업여성의 정신건강에 유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주희(2011)는 우리나라 기혼 취업여성의 다중역할 수행의 효과인 역할만족도와 역할긴장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기혼 취업여성들은 역할만족도와 역할긴장도를 유사한 수준으로 경험하며, 높은 수준의 결혼만족도를 경험하여 일-가족 긍정 전이 및 가족-일 긍정 전이가 결혼만족도를 높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선행연구에서 일-가족 전이 및 가족-일 전이와 여성근로자의 정신건강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제7차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데이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 조사구를 표집틀로 하여 거주 지역에 따른 다단계 층화확률추출법을 활용하였으며, 19~64세 여성 9,068명을 대상으로 2007년 첫 조사가 시행된 이후 2년 간격으로 추적조사가 이루어졌다. 제7차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원표본 가구(9,068가구)에서 유효가구 중 조사 성공 가구는 6,031가구로 표본유지율은 71.9%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개인은 원표본 가구원(10,446명) 중에서 조사 성공 가구원은 6,601명으로 표본유지율은 68.4%에 해당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본 연구자료는 7차 패널데이터 중 임금근로자로 분류되며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 중 30세~59세 연령층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30세~59세 연령층은 송지은·한경혜(2007) 연구의 연구대상자 범위를 참조한 것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자녀 양육부담과 직업의 부담을 모두 가진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는 30세~59세 연령층의 자녀가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맞벌이 임금근로자 취업여성에 해당하는 1,650명 자료이다.

2. 측정도구

1) 결과변수 : 정신건강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우울감 변수와 스트레스 변수를 활용하였다. 두 변수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개인용 설문지의 ‘건강과 여가·생활만족도’ 부분의 우울감 변수와 스트레스 변수를 활용하였다. 우울감 변수는 4점 리커트척도로 된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2문항을 역점수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895였다. 스트레스 변수는 4점 리커트척도로 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1문항을 역점수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703였다.

2) 원인변수 : 자녀요인

기혼 취업여성의 원인변수는 선행연구에 따라 자녀요인으로 하며, 미취학 자녀수 및 초중고 자녀수로 설정하였고 원점수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녀 변수가 제한적이어서 미취학 자녀수 및 초중고 자녀수를 원인변수로 선택하였다.

3) 매개변수 : 일-가족 전이유형 및 가족-일 전이유형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일자리용 설문지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부분에서 일-가족 긍정 전이 변수, 일-가족 부정 전이 변수, 가족-일 긍정 전이 변수, 가족-일 부정 전이 변수 등 4개 변수를 활용하였다. 일-가족 긍정 전이 변수는 4개 문항, 일-가족 부정 전이 변수는 2개 문항, 그리고 가족-일 긍정 전이 변수는 2개 문항, 가족-일 부정 전이 변수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 변수 모두 4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이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일-가족 긍정 전이 변수 .709, 일-가족 부정 전이 변수 .823, 가족-일 긍정 전이 변수 .644, 가족-일 부정 전이 변수 .754로 나타났다. 세 변수의 신뢰도는 모두 .70이상이지만, 가족-일 긍정 전이 변수의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왔다. Wadsworth와 Owens(2007) 연구에서도 가족-일 긍정 전이 변수의 신뢰도는 타 변수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보고하여 그대로 수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및 이론적 모형

본 연구에서는 자녀요인이 일-가족 전이유형 및 가족-일 전이유형을 다중 매개로 하여 취업여성의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경우 AMOS 21.0을 사용하였고, 기초 분석의 경우 SPSS Win 21.0을 활용하였다.

첫째, 우선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값과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방식으로 각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상호관련성과 정규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위해, 일차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의 지표들을 구성하였고,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수들과 잠재변수 사이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셋째,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투입된 자료는 상관행렬이고,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이며, 간접효과 추정은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 절대 적합지수인 RMSEA, 증분적합지수인 NFI, CFI를 사용하였다.

넷째,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모형적합도와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관계를 검증한 후, 다변량 델타검증을 활용하여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다음과 같은 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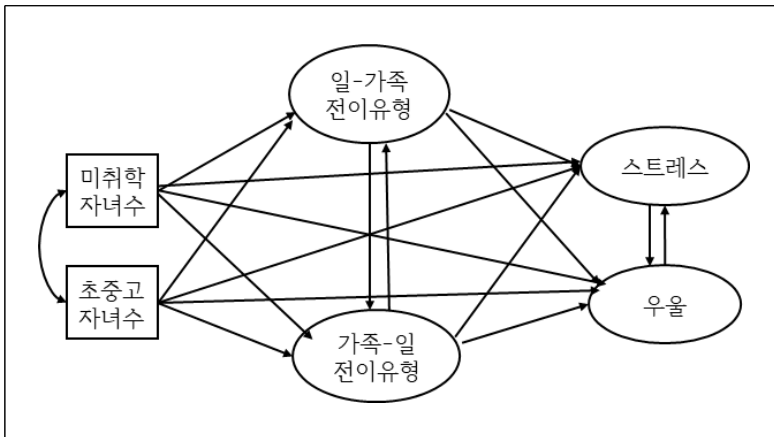
첫째, 미취학 자녀수 및 초중고 자녀수는 기혼 취업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미취학 자녀수 및 초중고 자녀수는 전이유형 변수를 다중매개로 하여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취업여성의 일-가족 전이유형과 가족-일 전이유형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취업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자녀수와 일-가족 전이유형 및 가족-일 전이유형의 다중매개 경로가 취업여성의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연령	30대	266	16.1	46.6 (6.73)
	40대	801	48.6	
	50대	583	35.3	
본인 학력 (년)	중졸 이하	98	6.0	13.3 (2.39)
	고졸	763	46.2	
	초대졸	319	19.3	
	대졸	408	24.7	
	대학원졸 이상	61	3.7	
	무응답/결측	1	.1	
본인 월소득 (원)	150만원미만	656	39.8	1,949,900 (1,019,250)
	150만원~300만원미만	751	45.5	
	300만원~450만원미만	172	10.4	
	450만원~600만원미만	55	3.3	
	600만원 이상	16	1.0	
배우자월소득 (원)	150만원미만	106	6.4	3,590,700 (1,711,140)
	150만원~300만원미만	361	21.9	
	300만원~450만원미만	660	40.0	
	450만원~600만원미만	206	12.5	
	600만원 이상	139	8.4	
	무응답/결측	178	10.8	
자녀수 (명)	1명	267	16.2	2.0 (.64)
	2명	1071	64.9	
	3명이상	312	18.9	
계		1,650	100.0	

전체 1,650명 유자녀 취업여성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16.1%, 40대가 48.6%, 50대가 35.3%로 평균 연령은 46.6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46.2%, 대졸 24.7%, 초대졸은 19.3% 순이며, 교육연수는 평균 13.3년으로 초대졸 정도였다. 연구대상자의 소득은 평균 약 195만원으로 150~300만원 45.5%, 150만원 미만 39.8%, 300~450만원 미만 10.4% 순이며, 배우자의 소득은 평균 약 359만원으로 드러나 배우자가 연구대상자보다 2배 정도 많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녀 수 평균은 2명이며, 1명이 16.2%, 2명이 64.9%, 3명 이상이 18.9%이었다.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 잠재변수의 기술통계량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변수가 강한 척도 및 왜도를 갖는 경우 다변량 정규성을 이탈하여 모수추정치 및 적합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일반적으로 왜도 기준은 절대값 3.0 이하, 척도 기준은 절대값 8.0 이하로 설정한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왜도는 절대값 0.003~0.878, 척도는 절대값 0.427~2.071에 위치하여 우수한 편이며,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잠재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본 연구대상자들은 일-가족 부정 전이(갈등)보다 일-가족의 긍정 전이(향상)를 더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긍정 전이에서 일-가족 긍정 전이(3.02)가 가족-일 긍정 전이(2.88)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부정 전이는 가족-일 부정 전이(2.33)가 일-가족 부정 전이(2.13)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Frone, 2003 ; Pleck, 1977)와 동일하게 전이 수준의 비대칭성 문제로 설명된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우울 평균을 보면, 스트레스의 평균이 2.12이며, 우울의 평균이 1.69로 취업여성들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경험하지만 우울은 경한 우울임을 알 수 있다.

〈표 2〉 잠재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일-가족 긍정 전이	3.02	.431	.214	1.152
일-가족 부정 전이	2.13	.681	.003	-.427
가족-일 긍정 전이	2.88	.550	-.331	1.017
가족-일 부정 전이	2.33	.703	-.289	-.469
스트레스	2.12	.379	-.266	.443
우울	1.69	.313	.878	2.071

2)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의 선행분석으로 원인변수 및 매개변수의 전반적인 관계를 파악하며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간 상관관계는 대부분 약하게 나왔지만 일-가족 부정 전이와 가족-일 부정 전이 간 상관관계가 .59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VIF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VIF계수는 2.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일-가족 긍정 전이와 일-가족 부정 전이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지만, 가족-일 긍정 전이와 가족-일 부정 전이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부정 전이 수준이 높으면 긍정 전이 수준이 낮고, 긍정 전이 수준이 높으면 부정 전이 수준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하여진 연구(2017)에서도 가족-일 긍정 전이와 가족-일 부정 전이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일-가족 부정 전이와 가족-일 부정 전이 간 상관관계가 높아($r = .599$, $p < .01$), 유자녀 취업여성에게 직업 역할로 인한 일-가족 간 갈등과 가족 역할로 인한 일-가족 간 갈등은 서로 밀접함을 알 수 있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변수	미취학 자녀수	초중고 자녀수	일-가족 긍정전이	일-가족 부정전이	가족-일 긍정전이	가족-일 부정전이
미취학 자녀수	1	-.167**	.049*	.083**	.022	.217**
초중고 자녀수		1	.006	.059**	.039	.078**
일-가족 긍정전이			1	-.057*	.452**	-.064**

변수	미취학 자녀수	초중고 자녀수	일-가족 긍정전이	일-가족 부정전이	가족-일 긍정전이	가족-일 부정전이
일-가족 부정전이				1	.051*	.599**
가족-일 긍정전이					1	.073**
가족-일 부정전이						1

* $p < .05$, ** $p < .01$, *** $p < .001$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1) 모형 적합도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연구모형이 주어진 경험적 자료와 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표 4).

적합성 검증에서 일반적으로 χ^2/df 가 5 이하일 때 양호한 수준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표본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고, 모델의 복잡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한계가 있어 χ^2 검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모형을 평가하지 않는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특히 본 연구의 표본수는 1,650으로 매우 큰 편이어서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다른 적합도 지수들인 NFI, CFI, RMSEA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원 연구모형은 포화모형으로 증분적합지수인 NFI와 절대적합지수인 CFI, RMSEA 모두 적정 모형적합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따라서 모형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모형의 수정 작업을 하였다. 일차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에 따른 표준화요인 부하량값을 확인하여 스트레스 변수에서 0.7보다 낮은 측정변수를 변수정제를 하였다. 그리고 우울에서도 0.7보다 낮은 변수들을 정제하였다. 또한 원 연구모형의 인과관계에서 유의하지 않는 관계, 즉 가설이 기각된 경우를 하나씩 제거하였다. 이에 수정모형의 모형적합도 결과는 <표 4>와 같다. 원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에서 NFI와 CFI가 0.9 미만이었으나, 수정모형에서는 NFI와 CFI가 0.9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정모형에서도 χ^2/df 값이 5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나,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는 χ^2/df 값은 본 연구에서 클 수 밖에 없으므로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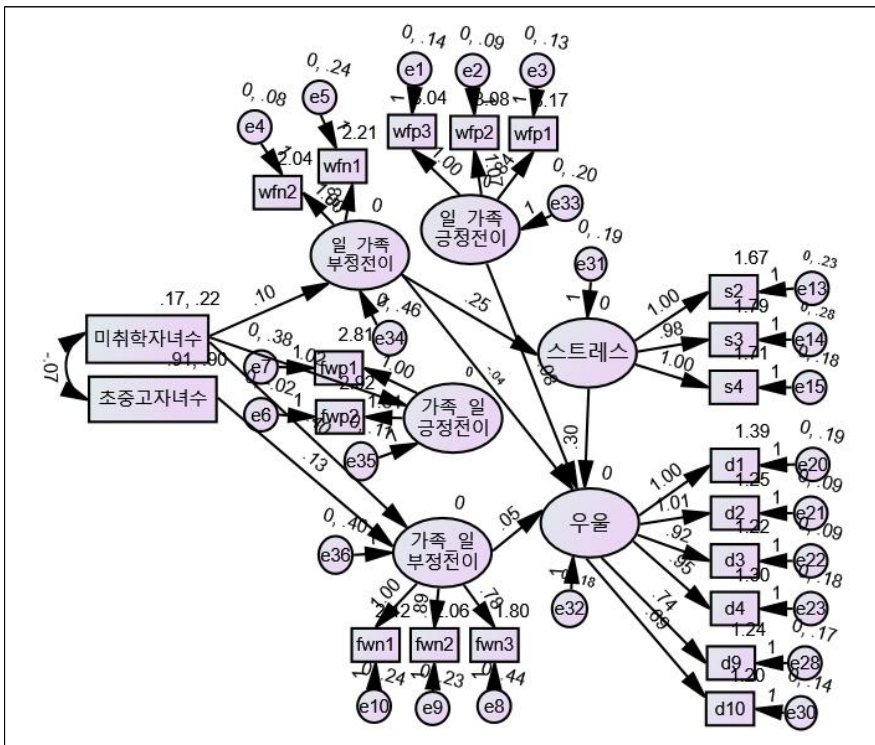
가능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RMSEA 통계치도 0.10 이하로 수정모형의 모형적합도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 연구모형 및 수정모형의 모형적합도

모형	χ^2	df	χ^2/df	NFI	CFI	RMSEA
연구모형	4949.021	316	15.66	.789	.800	.091
수정모형	2664.743	181	14.72	.911	.922	.063

2) 모형의 경로 분석

수정모형에서 경로의 표준화계수, 요인부하량과 C.R.값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구조모형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주어 수정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림 2] 수정모형

구조모형의 경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미취학 자녀수는 스트레스와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가족 부정 전이($\beta=.10$), 가족-

일 긍정 전이($\beta=.38$)와 가족-일 부정 전이($\beta=.13$)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취학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여성들은 일-가족 갈등 경험, 가족-일 향상 경험, 가족-일 갈등 경험이 모두 높아져,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취업여성에게 일-가족 양립의 갈등경험과 긍정경험을 동시에 제공함을 보여 준다.

그리고 초중고 자녀수 역시 스트레스와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이유형 중 가족-일 부정 전이에 정적 영향($\beta=.40$)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여성들의 초중고자녀로 인한 부담이 일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가족 긍정 전이는 우울에 정적 영향($\beta=.08$)을 미치며, 일-가족 부정 전이는 우울에 부적 영향($\beta=-.04$) 및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beta=.2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일 부정 전이는 우울에 정적 영향($\beta=.05$)을 미치며, 스트레스가 우울에 정적 영향($\beta=.30$)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일-가족 부정 전이가 높을수록 취업여성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그리고 일-가족 긍정 전이, 일-가족 부정 전이, 가족-일 부정 전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취업여성의 우울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결과는 취업여성의 일-가족 긍정 전이의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우울을 증가시키며, 일-가족 부정 전이 역시 영향력이 적지만 우울을 감소시키는 결과이다. 하여진(2017) 연구에서 우리나라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전이 양상은 외국과 달리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실제 삶에서의 양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대상 취업여성들 역시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정 연구(2016)에서도 일-가족 긍정 전이가 높은 집단에서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결과, 각 전이유형들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나, 우울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C.R.값으로 볼 때, 미취학 자녀수는 가족-일 긍정 전이(5.570), 가족-일 부정 전이(2.544), 일-가족 부정 전이(2.335) 순으로 영향력을 주어 미취학 자녀들은 취업여성들에게 긍정적 정서를 제공하는 동시에 양육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중고 자녀수는 가족-일 부정 전이(6.767)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커서, 학령기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들은 자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동시에 높은 직장 경력에 따른 책임으로 인해 이중 부담의 부정적 경험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Erickson, Martinengo & Hill, 2010). 또한 취업여성의 스트레스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일-가족 부정 전이(3.469)이며, 우울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스트레

스(5.275)로 나타났다.

〈표 5〉 변수 간 경로계수

변수 간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미취학 자녀수⇒ 일-가족 부정 전이	0.10	0.038	2.335**
미취학 자녀수⇒ 가족-일 긍정 전이	0.38	0.037	5.570*
미취학 자녀수⇒ 가족-일 부정 전이	0.13	0.02	2.544***
초중고 자녀수⇒ 가족-일 부정 전이	0.40	0.04	6.767***
일-가족 긍정전이⇒ 우울	0.08	0.056	1.489***
일-가족 부정전이⇒ 우울	-0.04	0.044	-1.158***
일-가족 부정전이⇒ 스트레스	0.25	0.027	3.469***
가족-일 부정전이⇒ 우울	0.05	0.037	1.226***
스트레스⇒ 우울	0.30	0.156	5.275***

* $p < .05$, ** $p < .01$, *** $p < .001$

〈표 6〉 변수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스트레스	⇐ 미취학 자녀수	0	0.79**	0.79**
	⇐ 일-가족 부정 전이	0.25**	0	0.25**
우울	⇐ 미취학 자녀수	0	0.32**	0.32**
	⇐ 초중고 자녀수	0	0.45***	0.45***
	⇐ 일-가족 긍정 전이	0.08**	0	0.08**
	⇐ 일-가족 부정 전이	-0.04**	0.55***	0.51***
	⇐ 가족-일 부정 전이	0.05**	0	0.05**
	⇐ 스트레스	0.30***	0	0.30***

** $p < .01$, *** $p < .001$

한편 경로분석에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면, 스트레스에 대한 총효과에서 미취학 자녀수(.79), 일-가족 부정 전이(.25)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표 6). 미취학 자녀수는 스트레스에 대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일-가족 부정 전이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큰 것을 알 수 있다. 우울에 대한 총효과는 일-가족 부정 전이(.51), 초중고 자녀수(.45), 미취학 자녀수(.32), 스트레스(.30)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가족 부정 전이는 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대해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중역할 속에서 삶이 유지되고 있는 기혼 취업여성의 자녀요인이 일-가족 전이유형 및 가족-일 전이유형을 매개로 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들은 일-가족의 긍정 전이(향상)를 일-가족 부정 전이(갈등)보다 더 높게 경험하며, 일-가족 전이 양상은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미취학 자녀수와 초중고 자녀수 모두 유자녀 취업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직접적 영향력이 없으나 전이유형을 다중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스트레스에 대한 총효과는 미취학 자녀수가 가장 영향력이 있고 우울에 대한 총효과는 일-가족 부정 전이, 초중고 자녀수, 스트레스가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기혼 취업여성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그 자체의 개입 뿐 아니라 자녀요인과 전이유형에 대한 개입 또한 요구됨을 시사한다. 더불어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의 부정 전이의 감소와 더불어 긍정적 경험의 증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그동안 일-가족 갈등으로 취업여성의 삶의 질을 예측했던 정부 정책의 관점에서 탈피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여성복지정책 및 가족복지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맞추어 노동시간의 감소 또는 휴가제도와 같은 정책에 집중되어왔는데, 일-가족 지원제도가 일-가족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어(김준기·양지숙, 2012), 사회적 지원제도뿐 아니라 단위 직장내 가족친화적 제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고용주가 남녀 근로자의 인적 개발을 위해 일-가족 영역 간 상호작용과 개인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근로자의 업무만족과 조직의 제도를 함께 향상시키도록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근로자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실시하는 것 역시 취업 여성의 일-가족 갈등의 완화에 필요할 것이다(박기남, 2009). 특히 기혼 취업여성의 정신건강은 자녀요인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다양한 전이 유형을 매개로 하여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의 성평등정책 및 가족친화정책의 진전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결과, 취업여성의 우울에 미취학 자녀보다 학령기 자녀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그리고 자녀 연령대 맞춤형 지원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 일-가족 지원제도는 빈곤계층 또는 학령 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여성을 지원하는 제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여성을 위한 지원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알려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는 유자녀 취업여성의 정신건강을 위해 일-가족 및 가족-일 부정 전이를 줄이는 정책 뿐 아니라 긍정적 전이를 높이는 개입 또한 중요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일-가족 전이 및 가족-일 전이의 다양한 유형과 취업여성의 정서적 경험을 함께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취업여성의 정신건강을 우울과 스트레스로 한정하였지만, 향후 긍정 정서의 영향력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제7차 여성가족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취업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 변수를 선택하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 취업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에는 자녀요인 외에 다른 인과적 요인들이 예상되며, 취업여성의 수입, 친정부모 및 시부모의 지원, 배우자의 적극적 가정일 참여, 직장의 성평등제도 및 가족친화제도 등이 취업여성이 다중역할을 병행하며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 외 자영업이나 1인 기업 등 다른 고용상의 지위를 지닌 취업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탐색도 요구되며, 이러한 주제들은 추후 연구에서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성국·박수연·이현실(2017). “직장 기혼 여성의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3호. 267-275.
- 김성경(2011). “기혼 취업여성의 특성이 일-가족의 긍정적 전이 및 부정적 전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33호. 69-94.
- 김소정(2016).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일가족갈등과 일가족촉진의 통합적 접근”. 사회복지연구. 제47권 제3호. 161-185.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준기·양지숙(2012).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0권 제4호. 251-280.
- 김혜원·김명소(1998). “취업이 기혼여성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3권 제1호. 35-50.
- 노성숙·한영주·유성경(2012).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직장인엄마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4권 제2호. 365-395.
- 박기남(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 갈등 연구: 연령계층별, 성역할 태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5권 제2호. 37-71.
- 박수미·한성현(2004). “기혼 여성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직업특성과 가족특성”. 한국인구학. 제27권 제2호. 155-175.
- 박주희(2011). “취업주부의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 삶의 질 연구. 제29권 제6호. 201-216.
- 송지은·한경혜(2007). “직업, 가족 및 일-가족 전이가 취업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한국과 미국의 비교”. 가족과 문화. 제19호. 61-92.
- 안윤숙·김흥주·이현진·하영진(2016).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요인, 직장요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7권 제1호. 157-185.
- 윤지원·황라일·조현하(2009).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5권 제4호. 294-302.
- 최혜지(2007). “기혼 취업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시간부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제19권 제4호. 75-102.
- 하여진(2017). “기혼취업여성 일-가족 양립에 따른 전이유형과 정신건강에 관한

- 연구”. *Family & Environment Research*. 제55권 제1호. 13-26.
- 한경혜·차승은(2004). “일·가족 역할의 보상/비용과 일·가족 전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6호. 105-13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0). 2020년 여성가족패널조사.
- Agrawal, M., & Mahajan, R.(2021). Work-family enrichment: an integrativ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Workplace Health Managemen*, 14(2), 217-241
- Allen, T. D., Herst, D. E., Bruck, C. S. & Sutton, M.(2000).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work-to-family conflict: a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2), 278-308.
- Demerouti, E., Geurts, S. A. & Kompier, M.(2004). Positive and negative work-home interaction: prevalence and correlates.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An International Journal*, 23(1/2), 6-35.
- Erickson, J. J., Martinengo, G. & Hill, E. J.(2010). Putting work and family experiences in context: Differences by family life stage. *Human Relations*, 63(7), 955-979.
- Frone, M. R.(2003). Work-family balance. In J. C. Quick & L. E. Tetrick (Eds.), *Handbook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43-16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rzywacz, J. G., & Marks, N. F.(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111.
- Grzywacz, J. G., & Bass, B. L.(2003). Work, family, and mental health: Testing different models of work-family fi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1), 248-261.
- Major, V. S., Klein, K. J. & Ehrhart, M. G.(2002). Work time, 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3), 427-436.
- McLanahan, S., & Adams, J.(1989). The effects of children on adults' psychological well-being: 1957-1976. *Social Forces*, 68(1), 124-146.

Pleck, J. H(1977). The work-family role system. *Social problems*, 24(4), 417-427.

Wadsworth, L., & Owens, B. P.(2007).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work-family enhancement and work-family conflict in the public sect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1), 75-87.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2에서 2021.10.13. 인출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8B%A0%EA%B1%B4%EA%B0%95>에서 2021.6.15. 인출

Abstract

The Effect of Child Factors on Mental Health of Married Women Employees : Focusing on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Work-Family Spillover & Family-Work Spillover

Sung Kyu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work-family spillover and family-work spillov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factors & mental health of married women employees. For the analysis, data of 1,650 married women employees with children from the 7th year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were used. The study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ith AMOS 21.0 softwar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ubjects of this study experienced work-family positive spillover & family-work positive spillover higher than negative spillover, and it was found that the spillover pattern did not show a typical appearance. Neither the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nor the number of school-age children had a direct effect on stress and depression, but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the spillover type as a medium. As for the total effect on stress, the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was the most influential, and for the total effect on depression, work-family negative spillover, the number of school-age children, and stress were the most influential. Th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working women, not only the intervention of mental health itself but also the intervention of the child factor and work-family spillover are required. Furthermor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Keywords : married women employees with children, child factor, work-family spillover type, mental health, depression, stress

* Professor, Korean Bible University